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사늘한 가슴과 메마른 입술은 모두 부정적인 내용들이니 생명력을 회복해야겠지.
해설	‘사늘한 가슴’에는 종소리가 들려오고, ‘메마른 입술’에는 피가 돕니다. 이는 모두 ‘부정적→긍정적’이라는 상황의 변화 덕분에 일어난 것이죠? [A]에서 ‘간구’하는 ‘무엇’과 [B]에서 ‘노래’하며 기다리는 ‘무엇’은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상황에 대한 기원·소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 그 자체를 담고 있는 선지이니, 어렵지 않게 허용할 수 있겠어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5%	3%	6%	4%	82%

### 32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⑤

- ① ‘들뜬 뿌리’는 나무가 처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동질감을 반영하고 있군.

이 도시의 이주민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자기의 깨달음을 언급하면서 나무의 뿌리 이야기를 하는 건 동질감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
해설	화자는 ‘도시의 이주민’이 된 이후에 깨닫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무’가 내린 것과 같은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는 다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보기> 등을 근거로 하면, 이는 도시라는 환경에 적응하여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나무와의 ‘동질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허용하려고 하면 허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내성이 생긴 이파리’는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성질을 보여 주는군.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내성이라는 말 자체가 적응하면서 지니게 된 것을 의미하지.
해설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처럼, ‘내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바탕으로 쉽게 허용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도시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이파리’가 벌레들이 아무렇지 않게 뜯어 먹어도 될 정도로 잘 적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 ③ ‘시끄러운 가로등 곁’은 꽃을 피우며 참아 내야 할 삭막한 도시 환경을 드러내고 있군.  
④ ‘신경증과 불면증’은 나무가 도시에 적응하기 위해 견뎌 내야 할 고통을 보여 주고 있군.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시끄러움, 신경증, 불면증 같은 건 전부 도시의 부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해설	두 선지는 사실상 같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나무는 ‘시끄러운 가로등 곁’이라는 삭막한 도시 환경 속에서 ‘신경증과 불면증’이라는 고통을 견뎌 내고 있습니다.

- ⑤ ‘치욕으로 푸르다’는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군.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갑자기 나무를 왜 비판해.

해설	<p>‘나무’는 화자가 ‘동질감’을 보이는 대상입니다. 갑자기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애초에 화자가 비판하는 것은 도시의 모습이니깐요. 나아가 화자가 ‘나무’에게 ‘동질감’을 보이는 것은 ‘나무’가 도시 환경에 치욕스럽게 적응했기 때문이지,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주제와 정반대되는 내용이니, 독해를 하기도 전부터 답으로 골라내야 합니다.</p> <p>조금 더 디테일하게 뜯어보면, &lt;보기&gt;에서 ‘치욕’이라는 표현에 대해 ‘나무의 반어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도시라는 부정적 환경에서 ‘푸르게’ 피어나는 모습이 나무에게 ‘치욕’으로 느껴질 것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반어적으로 표현하며 ‘나무’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지, ‘나무’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lt;보기&gt;도 선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재인식시켜주는 문제였어요.</p>
----	------------------------------------------------------------------------------------------------------------------------------------------------------------------------------------------------------------------------------------------------------------------------------------------------------------------------------------------------------------------------------------------------------------------------------------------------------------------------------------------

#### 현대시 독해 연습

<p>(가)</p> <p>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p>
---------------------------------------------------------------------------------------------------------------------

‘높으디높은 산마루’에 못 박힌 듯 기대어서, 즉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화자는 ‘긴 밤’을 무엇인가 간구하며 울어 왔다고 합니다. 화자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나봐요.

<p>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p>
-------------------------------------------------------------------------------------------------

‘긴 밤’이 지나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생겼어요. 화자의 ‘내면세계’가 변할 수도 있겠죠? 보아하니, 화자의 핏줄, 가슴의 한복판 등으로 ‘종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화자가 ‘간구’하던 ‘무엇’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 | 생각 심화 |

시에서 ‘종소리’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서의 종소리, 제야의 종소리 등은 모두 ‘수업시간/쉬는시간’, ‘연도’의 ‘변화’를 나타내듯이 말이죠. 여기서도 ‘종소리’가 들려오면서 화자의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할 것임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p>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p>
----------------------------------------------------------------------------------------------------

아침이 되고 나니, 눈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입니다.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이제 ‘긴 밤’이라는 어둠 속에서 ‘내 영혼의 촛불’ 역할을 하며 나래를 떨던 ‘샛별’은 숨어야 할 겁니다. ‘어둠’은 지나가고 ‘아침’이 되었으니깐요.

<p>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p> <p>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p>
----------------------------------------------------------------------------------------------------------------------------------------

‘이마 우’도 환히 트이고, ‘햇살’도 떠오르고, ‘입술’에 피가 돌아 ‘피리’도 불어 뿡니다. 모든 것에 생명력이 부여되고 있어요. 이제 ‘밤’을 지났으니, 화자에게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p>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p>
-----------------------------------------------------------------------------------

‘새’들도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의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고 합니다. ‘싸릿순’은 채소의 일종이에요. ‘향기’가 나는 이 ‘싸릿순’을 서로 사양하는 모습 등에서 아주 평화로운 세계가 그려지고 있어요. 화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무엇’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여기 높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다시 '높디높은 산마루'입니다. '긴 밤' 때와는 달리, '맑은 바람' 속에 홀로 선 화자는 다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무엇'을 기다린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긍정적인 내용들이 사실은 화자의 상상이었음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아직 '무엇'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화자는 훨씬 더 희망적인 자세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즉, 1연과 달리 '무엇'이라는 표현에 훨씬 더 희망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것이다

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도시가 가르쳐 준 '반어법'으로 표현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나무'라는 표현을 바탕으로 하면,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모습을 '반어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도시의 이주인이 된 뒤부터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곧 깨닫게 되었지만  
살아 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삭막한 도시 속에서 꽃을 피운 나무처럼, 화자도 속마음을 곧이곧대로 드러내기 어려운 도시에서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며 살아 있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화자 본인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무'의 이야기를 빌린 거예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비트는 법을 익히게 된 서른 몇 이후부터  
나무는 나의 스승

사실상 앞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해 주고 있죠? 나무를 '스승'이라고 부르면서 동일시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견딜 수 없는 건  
꽃향기 따라 나비와 벌이  
붕붕거린다는 것,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함없이 아삭아삭  
뜯어 먹는다는 것  
도로변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피어나는 꽃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르다

-손택수, 「나무의 수사학 1」-

삭막한 도시 환경에서 피워 낸 꽃이기에 나비나 벌들이 뜯어 먹기에 알맞지 않음에도, 벌레들은 변함없이 나무의 이파리를 뜯어 먹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화자는 '치욕'으로 묘사하고 있네요. 도시 속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치욕'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이는 화자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화자가 어떠한 대상에게 주목했다는 건, 그 대상에게서 동질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 몰랐던 어휘 정리하기

#### | 핵심 point |

- ① **허용 가능성 평가** : 선지의 내용을 '허용'하려는 태도를 바탕으로 지문을 '독해'하며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허용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개입시키면 안 됩니다.
- ② **현대시 독해** : 〈보기〉의 도움 등을 통해 '주제' 위주로, 그리고 일상 언어의 감각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현대시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글입니다.

## 〈보기〉 확인

## [보기]

이 작품은 신체의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다. 청각을 통해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 차이를 나타내거나, 과거 경험을 후각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시각을 통해서도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 체험을 보여 주는 한편 전쟁의 실상을 체험하면서 갖게 된, 현실에 대한 체념을 드러낸다.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사건을 주시하면서 생기는 번민을, 행동을 통해 제시한다. 이는 ‘나’가 사막 같은 현실에 발을 내딛는 계기로 작용한다.

‘감각’을 활용해 ‘나’의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체험인가 했더니, ‘전쟁의 실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전쟁 상황에 대한 체험이라는 주제를 확실하게 잡아놓고, 인물에게 공감하며 읽어보도록 합니다.

## 지문 독해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모든 사물, 모든 사람으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집에서 맞는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았다. “이런 전선에서 두부 장수 종소리, TV에서 흘러 나오는 노랫소리, 수돗물이 넘치는 소리가 웬일일까?” 라고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던 것이다. ‘이런 전선에서’란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처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 냄새였다. 그런데 두부 장수 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를 의식했을 때 나는 뭔가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다.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어쩌면 패덥스럽기까지 했다. 나미도, 학교 공부도, 또 나로부터 그토록 수많은 밤을 앓아 갔던 아틀리에에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하등의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 나날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 했다. 이따금 나는 내 안의 긴장에 대해서, 적어도 숨김없는 그 진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말하려 애써보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시작부터 ‘나’의 체험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딘가로부터 (아마 전쟁터겠조?) 집에 도착한 순간 주변으로부터 ‘차단’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왜 이런 심리를 보이냐 했더니, 자신의 몸에 밴 ‘전쟁 냄새’와 다르게 밖은 너무나 평온했기 때문이네요. ‘나’는 이런 상황에서 ‘맥이 탁 풀리고’, ‘권태스럽고 짜증스러운’ 심리를 보입니다. 공감하기가 어렵지는 않죠? 전쟁에서 돌아와 잔뜩 긴장한 상태인데, 주변이 너무나 태평하다면 저런 감정을 느낄 법도 합니다. 전쟁이라는 상태에서 현실로 복귀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 이제 생각이 난다. 며칠 전 다방에서의 일이. 실내엔 담배 연기가 짙 차 있었고 선정적인 허스키로 어떤 여자가 느린 곡조로 노래를 들려주고 있었다. 어쩌다가 내가 [나미]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다. 나는 다음과 같이 그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다 ‘나’는 ‘며칠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과거로 시간이 변했다는 건 확실하게 체크해야겠네요. 여기서 ‘나’는 ‘나미’라는 인물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일지 기대하면서 읽어봅시다.

나는 D고지에서 전투 중인 ○○ 연대 근처까지 물을 실어다 주라는 명령을 받았어. 음료수가 떨어져서 전 연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듯한 갈증과 싸우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T에서 거기까진 팔십 킬로 거리였지. 나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아 T를 떠났어. <한 치 앞도 가릴 수 없는 어둠과 정적. 묵신듯한 엔진 소리는 어둠과 정적의 벽에 부딪혀 바로 우리의 귓가에서 부서지고, 부챗살 모양으로 어둠이 지워진 헤드라이트의 반경 속에선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 마치 입체 영화에서 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지. 그 정밀함이란 길바닥에 튀구는 돌에 묻은 티, 풀포기에 매달려 잠자는 벌레 따위의 미세한 것들까지도 죄다 눈에 잡히는 듯했어.> 나는 온갖 사물들이 바로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전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어. 이따금씩 여우나 늑대 따위들이 길을 횡단하여 쏜살같이 사라지곤 했어. 어둠 속에서 한가로이 떠돌던 나방이 떼들은 갑작스런 불빛에 방향 감각을 잃고 원도에 머리를 부딪혀 빗방울처럼 떨어져 죽었고. 나는 운전하고 있는 한병장의 팔을 건드리며 유리창을 가리켰지. 그는 겁에 질린 해쓷한 표정으로 나를 힐끔 곁눈질했을 뿐이야. 그렇지,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선회마저 느낄 듯한 이 비사한 감각, 그리고 심연에서 샘처럼 솟아오르는 넘칠 듯한 생동감

이 없이는, 저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나방이 따위야 아무것도 신기할 것이 없지, 라고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빙글 웃었어.

‘나’가 ‘나미’에게 들려준 ‘얘기’는 전쟁터에서의 체험이었습니다. 이 체험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T라는 곳에서 D고지까지 ‘한병장’과 함께 급수차를 몰고 가는 상황의 긴장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 표시한 배경 묘사 부분에서 여러분도 괜히 긴장되는 느낌을 느끼셨다면 정말 잘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을 일종의 ‘skip 가능 구간’으로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긴장되는 상황을 길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A] 한병장이 다시 얼굴을 힐끔 돌리며 잡아 늘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 “차일병은 무섭지 않나?” “아뇨, 전연.” “대단하군. 여기선 적이 언제 어디서라도 나타날 수 있지.” “저는 적보다 진정으로 무서운 건 무감각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제대하면 곧장 결혼할 거야.” “언젠니까, 제대가?” “석 달 남았지.” “저는 지금까지 마치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 같아요. 이곳에 온 뒤론 바로 생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서 엔진이 고장났지. 몇 시간 지체하고 나니 벌써 동이 트더군요. 이제부터 정말 위험이 시작된 것이라 싶더군요. 왜냐하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면 공중 사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데다 불별 같은 폭연이 사정 없이 쏟아져 그도 또한 견디기 어려운 문제였지.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와 ‘한병장’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누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장’과 ‘일병’이라는 계급을 생각하고, 반말과 존댓말을 쓰는 게 누구인지 체크하며 읽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나아가 이들의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고서, 극도의 긴장감이 맴도는 상황을 더욱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러던 와중에 엔진이 고장난 모습입니다. 동이 트고, 둘은 더 깊은 긴장감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똑같은 느낌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중략)

아까부터 나는 창 옆에서 노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도 그가 그토록 진지한 얼굴로 잃어버린 물건을 계속 찾을 것인지. 대체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노인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난다면 무료한 가운데서도 어떤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던 나의 생활은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가 창밖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는 한 나는 계속 도전을 받는 셈이기에. 때문에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인이 찾고 있는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아무튼 이제 나는 그와 한마디 얘길라도 나눠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다.

(중략) 이후의 상황입니다. ‘나’는 갑자기 어떤 ‘노인’을 기다리고 있어요. ‘노인’이 어떤 인물일지라 그러나 했더니,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노인’이 오늘은 그것을 찾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찾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그 물건을 계속 찾으려 한다면 자신의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노인’이 물건을 찾는 것과 ‘나’의 생활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다고 하니 ‘나’에게 최대한 공감하면서 읽어봅시다. 드디어 전쟁에서 벗어나 ‘안정성’을 획득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을 흔드는 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B] 드디어 자전거에 짐을 싣고 공터 안으로 들어오는 노인의 모습이 눈에 잡힌다. 그 걸음 개가 종종 걸음으로 따르고 있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은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다. 비치파라솔 · 껌 · 연탄불 따위들이 착착 있을 곳에 놓여진다. 그런데 얼마 후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진다. 준비를 끝낸 노인은 이내 포장 안에서 빠져나와 개를 데리고 물웅덩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개는 하루 사이 아주 눈에 띄게 쇠약한 모습이고, 노인도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긴 하나 끈질긴 어떤 힘이 그의 전신에서 면면히 솟아 나오고 있는 듯하다.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했다.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무엇이 노인에게 저토록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인가. 아니, 노인은 무슨 실없는 망상을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방에서 뛰쳐나왔다.

드디어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저것하다가, 갑자기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을 합니다! 왜 놀라는 걸까요? 그렇죠. ‘노인’이 ‘물건’을 찾지 않을 줄 알았는데 찾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나’는 완전히 ‘안정을 잃고’ 방 안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입니다. 왜 이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노인’ 때문에 ‘나’의 멘탈이 무너졌다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겠네요. ‘노인’이 물건을 찾는 행위의 의미 같은 내용이 아니라, ‘나’의 심리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해요. 결국 소설 독해의 핵심은 ‘인물에 대한 공감’이니까요.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7%	80%	2%	10%	1%

### 119 [A]와 [B]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

- [A]와 [B]의 ‘서술상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A]는 ‘한병장’과 ‘나’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 상황이 변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 등을 실감나게 전달하고 있고, [B]는 ‘노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심리를 그리고 있어요. 이 정도 생각하고 비슷한 말을 찾으려 가봅시다.

- ① [A]는 회상 장면을 삽입하여, [B]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1인칭 시점인데 객관적 전달은 너무하지.
해설	[A]에 회상 장면이 등장하는 것도 맞고, [B]에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는 것도 맞지만 인물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건 지문의 내용에 완전히 어긋나죠? 이 작품은 ‘나’라는 사람의 ‘주관적’인 체험을 전달하고 있어요.

- ② [A]는 구어체를 활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B]는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생각했던 내용 그대로네.

#### 해설

[A]는 애초에 ‘나’가 ‘나미’에게 이야기를 해 주는 부분이기에 구어체를 사용하여 경험한 사실을 전달하는 게 당연하고, [B]에서도 다양한 현재형 어미(-니다)를 활용하여 ‘노인’을 관찰하는 모습을 전달하고 있으니 충분히 허용할 수 있겠습니다.

- ③ [A]는 공간 이동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B]는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들의 외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외적 갈등이 나타나지는 않지.
해설	‘급수차’를 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A]에는 ‘공간의 이동’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노인’의 ‘한 공간’에서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B]에서는 ‘공간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두 장면 모두 ‘외적 갈등’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A]와 [B] 모두 ‘나’가 느끼는 긴장감, 괴로움 등의 ‘내적 갈등’만 나타날 뿐, ‘외적 갈등’을 허용할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 ④ [A]는 인물 간의 대화를 삽입하여, [B]는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을 제시하여 갈등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갈등 해소가 어딴어.
해설	[A]에 대화 삽입된 것은 맞습니다. 반면 [B]에는 ‘노인’의 행동이 드러날 뿐, ‘인물들의 반복되는’ 행동은 드러나지 않죠? 거기에 ‘갈등 해소 과정’이 드러난다는 것 역시 너무나 헛소리구요. 지금까지 많은 소설 기출문제를 풀어봤다면, ‘갈등 해소 과정’이 맞는 선지로 나온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보통 수능 지문으로 발췌되는 부분이 ‘위기’와 ‘절정’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까지 챙겨가세요!

- ⑤ [A]는 중심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B]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여 사건들의 인과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인과 관계는 핵심이 아니지.



해설	[A]는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B]에서는 '주변 인물의 말'을 제시하지 않았죠? 그저 '노인의 행동 및 그로 인한 '나'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	---------------------------------------------------------------------------------------------	--	--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81%	4%	3%	7%	5%

## 120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① '나'는 일상을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미'를 만나 전쟁의 경험담을 전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태롭고 짜증스럽게 느끼고 있던 것 맞지.
해설	바로 정답으로 고를 수 있어야겠죠? '나'의 '권태롭고 짜증스러운' 심리와 그 근거, '나미'와 만나 전쟁의 이야기를 전하는 상황 등을 이해했다면 너무나 쉬운 선지가 되겠네요.

- ② '나'는 D고지로 향하는 도중 음료수가 떨어져 곤란함이 가중된 상황에 처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음료수가 떨어져서 곤란한 게 아니었지.
해설	음료수가 떨어진 건 D 고지의 병사들이고, '나'는 그곳으로 음료수를 전달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아가 '나'가 '곤란함'에 처한 것은 엔진이 고장 나서 날이 밝았기 때문이었죠? 심리의 근거에 주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네요.

- ③ '나'와 '한병장'은 어둠을 밝히는 헤드라이트로 인해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그랬으면 살아 있을 리가 없지.
해설	동이 트자 적의 정찰 비행에 발견되어 공격을 받을 수 있다며 두려움에 떠는 모습만 등장했죠. 실제로 공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공격을 받았다면 전쟁 이후 '집'으로 돌아간 '나'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 ④ '나'는 임무 수행 중에 결혼할 계획을 밝히며 귀환 후의 꿈 같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갖는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결혼 얘기한 건 한병장이지.
해설	결혼 계획을 꿈꾸는 건 '한병장'이었습니다. 대화가 나오면, 누구의 대사인지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해요.

- 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자신의 긴장감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사실에 생동감을 느낀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권태롭고 짜증났지.
해설	'나'는 전장에서 귀환한 후 '권태, 짜증' 등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죠?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8%	3%	7%	12%	10%

## 121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집에 도착한 그 첫 순간에 베일에 가린 듯이  
㉠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나 자신을 느꼈다.

노인이 찾고 있는 ㉡ 물건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런저런 것을 알아보노라면 노인의 그와 같은 숙연한 태도와 잃어버린 물건 사이의 상관관계도 알게 될 것이다.

- ㉠은 '나'가 차단된 느낌을 받는 '전쟁터 밖의 세상' 그 자체이고, ㉡은 '나'에게 절망을 준 '노인'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선지 판단에 나서보도록 합시다.

- ① '나'는 '노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를 찾는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예감한다.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예감한 건 아니지.

## DAY 13 [134~138]

2021.12 [38~42] 고전시가+수필 '사미인곡 / 창 밖기 워석  
버석~ /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 〈보기〉 확인

#### —[보기]—

(가)에는 천상의 시간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다. 천상에서는 지상과 달리 생로병사의 과정 없이 끝없는 사랑이 지속된다. 이러한 시간적 질서는 지상에 내려온 화자를 힘겹게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 시간을 심리적으로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

‘천상’과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나고, 화자는 ‘지상의 시간’을 적절히 변형하여 자신의 심경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시간 표현’이 중요하게 다뤄지겠다는 것 정도를 얻을 수 있겠네요.

#### —[보기]—

고요함은 소리나 움직임이 없이 잠잠한 상태인 외적 고요와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 내적 고요로 구분할 수도 있다. 이에 주목하여 (나)를 감상할 때, 화자가 처한 상황과 그에 따른 심리는 고요함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다)에서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 하는데, 이를 통해 삶에서 느끼는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 내는 동력을 얻고 있다.

(나)와 (다)는 ‘고요함’이라는 요소를 바탕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라는 개념의 정의는 정확하게 체크해주셔야겠지요? 특히 (다)에 대한 설명에서는 ‘내적 고요 추구’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네요. 꼼꼼하게 챙기고 나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 실전적 지문 독해

(가)

이 몸 삼기실 제님을 조차 삼기시니

→ 이 몸 태어날 때님을 좃아 태어났으니

훈칭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 한생 연분임을 하늘이 모를 일이던가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괴시니

→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날 사랑하시니

이 못음 이 사랑 견줄 디 노여 업다

→ 이 마음과 이 사랑은 견줄 데가 전혀 없다

평생(平生)에 원(願)하오디 훈디 네자 하얏더니

→ 평생에 원하니 한 데 살자 했더니

늘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논고

→ 늘어서야 무슨 일로 외로이 두고 그리워하는가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던(廣寒殿)의 올랐더니

→ 엇그제 님을 뵈셔 광한전에 올랐더니

그 더디 엇디하야 하계(下界)에 내려오니

→ 그 동안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올 저기 비슨 머리 헛틀언 디 삼 년일쇠

→ 올 때 빛은 머리 형클어진 지도 삼년이구나

연지분(胭脂粉) 잇니마는 놀 위하야 고이 홀고

→ 연지분 있지만은 누굴 위해 곱게 할가

못음의 미친 실음 텃텃(疊疊)이 빠져 이셔

→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짓느니 한숨이오 디느니 눈물이라

→ 짓느니 한숨이고 디느니(?) 눈물이다

인생(人生)은 유한(有限)훈디 시름도 그지업다

→ 인생은 유한한데 시름도 끝이 없다

무심(無心)하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논고야

→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듯 하는구나

염낭(炎涼)이 새를 아라 가는 듯 고터 오니

→ 염낭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늦길 일도 하도 할샤

→ 듯거니 보거니 느릴 일도 많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헤터 내니

→ 동풍이 불어 적설을 헤쳐 내니

창(窓) 밖기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 창 밖에 심은 매화 두세 가지 피었다

곳득 냉담(冷淡)훈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 가득이나 냉담한데 암향은 무슨 일이나

황혼의 달이 조차 벼마티 빗치니

→ 황혼의 달이 좃아와 벼 말에 비치니

늦기논 듯 반기논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더 미화 것거 내여 님 겨신 디 보내오져

→ 저 매화 꺾어 내어 님 겨신 데 보내고자 한다

님이 너를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정철, 「사미인곡」-



필수 고전시가 중의 하나인 ‘사미인곡’입니다. ‘삼기다’, ‘괴다’, ‘노여’, ‘~할 제’ 등의 어휘의 의미와 ‘동풍’, ‘적설’, ‘매화’ 등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의 쓰임을 잘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읽어내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임금님 보고싶어요!’라고 하는 작품이니깐요. 이 정도의 주제는 확실하게 잡을 수 있겠죠?

### | 생각 심화 |

사실 2021학년도 수능에서 사미인곡이 등장한 것은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 같은 작가(정철)의 ‘관동별곡’이 출제되었거든요. 한 해에 같은 작가가 두 번 이상 나온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측했지만 평가원은 이를 비웃듯이 바로 출제해버린 모습입니다. 사실 이는 2013학년도에도 벌어졌던 일이에요. 당시 6월 모의평가에 사미인곡, 수능 때 성산별곡이 나오면서 ‘정철’이라는 작가가 두 번이나 등장했었죠. (그리고보니 또 정철이네요.) 선부분 작품 예측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보여 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측’에 기대지 말고 본질적인 ‘실력’을 기르도록 합시다.

나아가, 2021학년도에 출제되었던 고전시가 세 작품(관동별곡, 만흥, 사미인곡) 모두 ‘필수 고전시가’에서 출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심지어 ‘만흥’과 ‘사미인곡’은 각주도 주지 않고 출제했어요. 이처럼 필수적인 고전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친절하게 출제할 여지가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창 밖기 워석버석 님이신가 니러 보니

→ 창 밖에 워석버석 님이신거 일어나 보니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 혜란 혜경에 낙엽은 무슨 일이나

어즈버 유한(有限) 혼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호노라

→ 유한한 간장이 다 끊어질까 하노라

-신흥-

\* 혜란 혜경 : 난초 핀 지름길.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도 출제되었던 ‘신흥’의 ‘방옹시어’ 중 일부입니다. 워낙 유명한 클리셰를 가진 작품이에요. ‘착각’ 모티프에 해당하는데, ‘님’을 기다리다가 다른 물체를 님으로 착각했다는 식으로 그리움을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그리 어렵지는 않죠?

(다)

나는 예전에 장흥방의 길갯집에 살았다. 그 집은 저갓 거리에 제법 가까워서 소란스러웠다. 문 옆에 한 칸짜리 초당이 있어 벗짚으로 덮고 흙을 쌓았더니 그윽하고 조용해서 살 만했다. 그러나 초당이 동쪽으로 치우쳐 햇볕을 받았기에 여름이면 너무 더웠다. 그래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靜勝熱]’는 말을 당호(堂號)\*로 정해 문설주에 편액을 해 걸어 두고 위안을 삼았다.

\* 당호 : 집에 붙이는 이름.

글쓴이의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꽤나 소란스러웠지만 초당을 만들어서 조용하게 지내려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더웠다고 해요. 그런데 글쓴이는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는 말을 ‘당호’로 정해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더운 것보다 조용한 게 더 중요했나봐요.

대저 고요함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몸의 고요함이요, 다른 하나는 마음의 고요함이다. 몸이 고요한 사람은, 앉고 눕고 일어나고 서는 등 모든 행동에 있어 편안함을 취할 뿐이다.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천하만사가 마치 촛불로 비취 보고 거북이로 점을 치는 듯하니 시원한 날씨와 더운 날씨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지금의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가리킨다.

글쓴이는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 중 ‘마음의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적 고요’보다는 ‘내적 고요’를 중시하는 모습이네요. 당호에 나타난 ‘고요함’은 내적 고요함을 뜻하는 것이라고도 구분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고 이사하였다. 그로부터 삼 년이 흐른 뒤 옛집을 찾아가 보았다. 그새 주인이 바뀐 지 여러 번이지만 집은 옛 모습 그대로였다.

<은은하게 처마에 들어오는 산빛, 팔팔팔 담을 따라도는 골짜기 물, 밀랍으로 발라 번들번들한 살창, 쪽빛으로 물들여 놓은 늘어진 천막.>

그 집에서 이십 년을 살다 이사했고, 몇 번 찾아가봤다고 합니다. 그 집의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네요. 꽤 아름답게 묘사되는 모습이지요?

(중략)

내가 여기에 살던 시절은 집안이 번성하던 때였다. 선친께서 승명전에 봉직하실 때라, 퇴근하신 밤이면 우리 형제들이 모시고 앉아 학문과 예술을 담론하고 옛일을 기록하거나, 시를 읽거나 거문고를 들었으니 유중영의 옛일\*과 비슷하였다. 그 즐거움을 잊을 수는 없건마는 다시 되찾을 수는 없다!

『서경』에 ‘그릇은 새것을 찾고, 사람은 옛 사람을 찾는 다.’라고 했다. 집 역시 그릇과 같이 무언가를 담는 부류이긴 하나, 사람은 집이 아니면 몸을 붙여 머물 데가 없고 집보다 더 거처를 많이 하는 것은 없으므로,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다 하겠다. 그러니 어찌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 유중영의 옛일 : 당나라 때 문신 유중영이 늘 책을 가까이하며 자식들을 가르치던 일.

그러면서 그 집에서 살던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집’은 ‘그릇’보다는 사람에 가깝기 때문에 그리워한다는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립다’는 반응만 정확하게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사가 벌써 바뀌어, 사물에 닿을 때마다 슬픔만 더하므로 이 집에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 마땅히 임원(林園)\*에 집터를 보아 집을 지어서 옛 이름의 편액을 걸어 옛집에서 지냈던 뜻을 잊지 않으려 한다.

누군가는 ‘임원이 이미 고요하거늘, 지금 다시 ‘고요함’이 이긴다’고 하면 또한 군더더기가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으리라. 나는 답하리라.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고요함이라네.’라고.

-유본학, 「옛집 정승초당을 둘러보고 쓰다」-

\* 임원 : 산림.

이 집에 살던 과거가 그립지만,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새 집에 같은 이름을 지어 ‘내적 고요’를 마음속에 품으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과 더불어, <보기>에서 이야기한 ‘내적 고요 추구’라는 주제가 잘 드러난 작품이었습니다.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3%	5%	10%	6%	76%

### 13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

① (가)의 ‘노여’와 (나)의 ‘다’라는 수식어는 모두 임에 대한 원망의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이 무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어즈버 유한(有限)흔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흐노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원망이 어디 있어.
해설	‘노여’는 ‘전혀’라는 뜻이고, ‘다’는 ‘간장’이 끊어질 것 같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맥락상 ‘원망’이라는 엄청난 반응을 허용할 근거가 없어요.

② (가)의 ‘흐노고야’와 (나)의 ‘흐노라’는 모두 화자의 의지를 단정적인 종결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무심(無心)흔 세월(歲月)은 물 흐르듯 흐노고야

어즈버 유한(有限)흔 간장(肝腸)이 다 그출가 흐노라

선지 유형	근거가 없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의지를 허용하기는 어렵겠는데?
해설	‘흐노고야’와 ‘흐노라’는 모두 ‘~한다’는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지’라는 반응을 허용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③ (가)의 ‘미화’와 (나)의 ‘혜란’은 모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창(窓) 밧긔 심근 미화(梅花) 두세 가지 피여세라  
긋득 냉담(冷淡)흔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혜란에는 의인화도, 동일시도 없는데?
해설	<p>‘매화’는 봄이 되자 피어난 것으로, 화자가 님에게 보내고자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화자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니,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로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를 보고’라는 표현을 통해 의인화도 되어 있구요.</p> <p>하지만 ‘혜란’은 화자의 착각을 유발한 ‘낙엽’이 있는 곳의 꽃일 뿐입니다. 의인화가 쓰이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화자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시’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겠죠.</p>

- ④ (가)의 ‘므스 일고’와 (나)의 ‘므스 일고’는 모두 뜻밖의 대상과 마주하게 된 반가움을 영탄적 어조로 표현한 것이다.

궂득 념담(冷淡)헌디 암향(暗香)은 므스 일고

혜란(蕙蘭) 혜경(蹊徑)에 낙엽은 므스 일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불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반가움은 주제랑 너무 어긋나네.
해설	<p>애초에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님과 만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반가움’을 허용할 수가 없겠죠. 두 ‘므스 일고’는 각각 ‘암향, 낙엽’이라는, 화자가 기다리지 않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더 확실하게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p>

- ⑤ (가)의 ‘님이신가’와 (나)의 ‘님이신가’는 모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독백적 어조로 드러낸 것이다.

늦기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창 밖의 위석버석 님이신가 내려 보니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주제 그 자체네.
해설	<p>‘님이신가’라는 말 자체가 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니, ‘간절함’은 자동으로 허용이 되겠습니다. 근처 맥락을 봐도 모두 화자가 님이 온 것 같은</p>

	느낌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구요. 애초에 ‘임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은 이 지문의 ‘주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 선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	-------------------------------------------------------------------------------------------

선지	①	②	③	④	⑤
선택률	6%	12%	10%	18%	54%

### 135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

- ① 임과의 ‘연분’을 ‘하늘’과 연결 짓는 것은, 임과의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겠어.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흔싱 연분(緣分)이며 하늘 모를 일이런가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하늘과 연결지었으면 천상의 시간 질서 허용되지.
해설	<p>근처로 돌아가서 독해해보니, ‘연분’임을 ‘하늘’이 모르겠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 ‘천상’의 시간 질서를 따라가길 바란다는 건 허용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천상’도 안다고 했으니까요. ‘연분’이 ‘사랑’과 관련된 단어라는 것만 알아도 쉽게 허용할 수 있겠죠?</p>

- ② ‘점어 잇고’와 ‘늑거야’를 통해 화자가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 시간으로 편입되었음을 알 수 있겠어.

나 하나 점어 잇고 님 하나 날 괴시니  
이 므음 이 스랑 견줄 디 노여 업다  
평싱(平生)애 원(願)하요디 헌디 네자 하얏더니  
늑거야 므스 일로 외오 두고 그리노고

선지 유형	근거가 있어서 허용 가능
실전에서의 판단 과정	젊고 늙으면 지상의 시간으로 넘어 온 거지.
해설	<p>특이하게 1번 선지와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분명 화자는 님과의 ‘연분’이 ‘천상의 시간’ 속에서 이어지길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젊음’과 ‘늙음’이라는 ‘지상의 시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하면 ‘천상의 시간’에서 벗어나 ‘지상의</p>